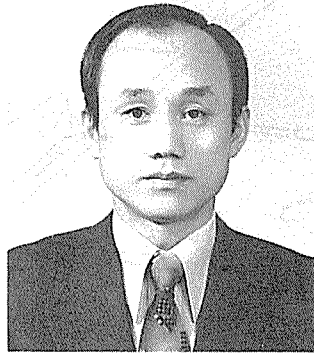


유가구조 조정배경과 주요내용



李 東 圭
〈동력자원부 석유조정관〉

1. 머리말

지난해 8월 걸프사태 발발로 30\$/B 이상 상승하였던 국제원유가격이 지난 2월이후에는 16~17\$/B 선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걸프전쟁 종전 이후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협력분위기, 지난 6. 4일 OPEC 총회의 시장안정화 구도를 감안할 때 금년 하반기에도 특별한 사태가 없는 한 16~19\$/B 수

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유가기준을 19.40\$/B에서 17.70\$/B로 하향조정하고 이 재원을 활용하여 휘발유, 등유, B-C유에 대한 가격인하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글은 금번 유가조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및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석유정책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국제 석유시장 추이

(단위 : \$/B)

	1990 평균	1991. 3	1991. 4	1991. 5	1991. 6. 21
두 바 이	20.25	14.85	15.23	15.92	15.44
오 만	20.77	15.39	15.78	16.47	15.99
브 렌 트	23.48	19.04	19.00	19.20	18.43
W. T. I	24.36	19.89	20.70	21.24	20.15
OPEC 평균	21.23	16.34	16.41	16.90	-
국내도입가격	19.99	16.82	16.42	16.00	-

2. 유가조정에 따른 주요고려사항

정부가 국내유가를 관리함에 있어 국제석유시장 동향 뿐만 아니라 향후 석유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몇가지 고려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는데, 금번 유가조정시 고려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석유소비 추이

우리나라는 지난 86년 이후 7회에 걸쳐 석유가격을 계속 인하하여 지난 6월 현재 소비자가격수준은 85년말 대비 61%에 불과하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석유소비가 급격히 늘어 연간 석유소비량이 85년 1.9억배럴에서 91년에는 4.2억배럴로 2.2배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세계석유수급 통계를 보면, 89년도 세계석유소비증가율은 1.5%이며, 수출경쟁국인 대만도 8.9%에 불과한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14.6%에 달하여 연간소비량이 세계에서 10위권에 들 정도이다. 이에 따라 89년 석유수입액이 57억달러에서 90년에는 90억달러 수준이 되어 총수입액의 12.8%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88년 이후 더욱 심화되었는데 석유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배이상 상회하고, 특히 생활의 편의성 추구에 따른 수요구조의 경질화로 휘발유, 등유등 소비성유종은 증가율이 30%이상을 넘어 석유의존도가 85년 이후 다시 50%를 넘게 되었다. (90年 : 53.6%)

따라서, 非생산부문의 석유소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가관리의 중요한 과제이다.

석유소비 추이

(단위 : \$/B)

	1988	1989	1990	1991(전망)
경제성장률	12.4	6.7	9.0	9.0
석유소비 증가율	19.0	14.6	24.1	17.4
(휘발유)	(31.1)	(34.7)	(29.5)	(26.7)
(등유)	(22.5)	(44.0)	(73.4)	(25.2)

(2) 경제개방화에 따른 경쟁체제로의 전환

우리나라는 석유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총소요 에너지의 70% 이상을 석유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고판매가격을 관리하여 왔으며 석유산업도 정부주도하에 육성·규제하여 왔다. 이 결과 지난 걸프사태와 같이 국제석유가 폭등하는 시기에도 석유를 안정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차례의 석유위기와 걸프사태를 겪으면서 국내 정유산업도 석유개발, 원유도입등 석유 전반에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UR서비스 협상, 자본자유화등 경제여건 변화로 석유산업에 대한 대외개방도 미구에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국내 석유산업 체질 강화를 위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석유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석유소비구조도 경질화되어 석유의 수출입도 활발해졌는데 90년 석유제품수입 규모가 전체소비량의 25%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석유소비 증가로 산유국 및 메이저의 석유산업 하류부문 진출욕구가 증대되는 시점에 있다.

정부에서는 석유산업의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경쟁여건이 조성된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내 석유가격구조를 국제수준으로 접근시킬 것이 요청되었다.

(3) 석유사업기금의 운용

걸프사태 발발 이후 국제원유가가 30\$/B이상으로 폭등됨에 따라 외국의 석유가격은 15~30%정도 인상조정되었으며, 우리와 같이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는 대만도 90. 8. 24일 평균 27%정도 가격을 인상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유가를 인상하지 않고 그동안 축적하였던 석유사업기금을 활용하여 완충하

석유가격 변동내용 (소비자가격 기준)

(단위 : %)

	日 本			臺 灣*			英 國		
	사태전	최 고	사태후	사태전	최 고	사태후	사태전	최 고	사태후
	90. 7	90. 9	91. 4	90. 7	90. 9	91. 5*	90. 7	90. 9	91. 4
휘 발 유	100	107	102	100	130	122	100	117	111
경 유	100	115	104	100	130	125	100	116	116
B - C 유	100	132	107	100	100	95	100	150	110

* 臺灣 : '91. 5. 26 평균 약 5% 인하

였다. 다만 소비성유종인 휘발유와 등유(전체수요의 15%)에 대해서 90. 11. 25 과소비억제를 위해 소비자가격을 28% 인상하였으나 경유, B-C油등 주요유종은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므로써 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유지에 기여하였다.

걸프사태 기간중 발생한 수입석유에 대한 손실보전소요는 약 11,368억원에 달하는데 7월 현재 정유사에 지급하지 못한 약 2천억원에 대해서도 정유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연내에는 상황이 되도록 조치가 필요하였다.

한편 걸프사태 기간중 국내유가를 전면 인상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유가의 대폭적 인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원유가 상승에 대처하고 석유비축, 송유관건설, 에너지절약 등 중장기적 에너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내유가기준 19.40\$/B와 현 국제원유가 16\$/B수준과의 차액 전액을 국내유가인하에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였다.

정부는 걸프사태시 손실보전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기금에 의한 유가완충이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한계가 있으며 국제유가가 폭등하는 시점에도 국내 석유소비가 이상적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국내유가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으므로 앞으로 유가완충기능은 국제원유가의 계절적 변동등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실시할 계획이다.

(4) 석유제품 제조원가의 상승

정유산업은 투자회임기간이 긴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설비건설에 많은 투자비가 소요된다. 특히 석유소비 증가에 따른 설비증설과 수요구조의 경질화에 대응한 질 좋은 석유를 공급하기 위해 중질유분해 및 탈황설비 투자가 본격화된 현시점에서 석유제품 제조원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석유공급설비 확충계획》

- 상압증류시설	('90)	840千B/D	→	('92)	1,235千B/D
- 중질유분해시설	('90)	34千B/D	→	('93)	154千B/D
- 탈황시설	('90)	-	→	('93)	120千B/D

90년도에도 설비투자에 따른 지급이자, 신규설비 가동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 기타 수송능력 저하 및 교통악화로 인한 수송비 부담이 늘어 정유사의 비용이 증가하였다. 정부는 90년도 정유사 정제비용을 2,273원/B로 정하여 유가관리하였으나, 결산결과 이를 훨씬 상회하는 2,947원/B으로 나타났다.

91년도에도 신규설비 증설에 따라 정제비용의 계속적인 상승이 전망되므로 국내 정유사의 국제규모

로의 육성과 석유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그동안의 환율 상승분을 감안하여 720원/\$에서 730원/\$로 조정하고, 정제비용도 2,720원/B으로 인상하되 나머지는 기업의 경영합리화로 흡수토록 하였다.

한편 건설단가가 상압증류설비보다 배럴당 2~3배 이상 소요되는 중질유분해 및 탈황설비에 대한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제비용의 계속적인 상승이 예상되어 향후 유가관리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新規投資費 所要 : 億圓》

	'87~'89	'90	累 計	計劃工期
· 상압증류시설	937	2,344	3,281	'88~'91
· 중질분해 및 탈황시설	3,493	566	4,059	'87~'93
· 휘발유 개질시설	343	907	1,250	'88~'91
· 공장저장 및 입출하 시설등	3,489	1,368	4,857	
· 저유소 및 수송시설	809	306	1,115	
計	9,071	5,491	14,562	

3. 유가구조 조정의 주요내용

(1) 기본원칙

이번 유가조정 기본원칙은 석유제품가격을 일부 인하하여 물가안정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소비성 유종에 대한 소비억제에 역점을 두었으며, 국내유가구조를 국제수준으로 접근시켜 향후 유가자유화에 대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면도 고려하였다.

(2) 주요내용

첫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용 주종연료인 B-C유 소비자가격을 5.0~5.7%인하하였다.

B-C유 수요는 대부분이 산업용인 만큼, (산업용 53%, 발전용 27%) 국내산업의 연료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경쟁국과의 가격수준을 고려하여 인하하였다. 다만, 저유황유와 고유황유

간의 가격 격차(12.28원/ℓ)는 현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환경개선을 위한 탈황시설의 투자를 촉진키로 하였다.

둘째, 민생연료인 등유의 소비자가격을 9.2%인하하였다. 등유는 총수요의 77.7%가 가정·상업용 민생연료로 물가안정을 기하고 특히 최근들어 난방연료의 급격한 사용증가(90년 : 73.4%증가)로 동절기에 수요가 집중적으로 나타나 수요차질이 우려되는 실증임을 감안하여 비수기인 하절기간중에 우선적으로 국내가격을 인하하여 국제수준으로 접근시켜 가격을 자유화함으로써 동절기에 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휘발유는 세전공장도를 15%수준(보통 15.9%, 무연15%)인하하고 동시에 특수세율을 인상(85→120%)하여, 소비자가격은 현수준(477원/ℓ)을 유지토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주요외국과 비교시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으며, 최근 몇년간의 휘발유소비는 연평균 30%

가격 조정 내역

(單位 : 원 / ℓ, %)

	세 전 공 장 도 가 격			소 비 자 가 격			비 고 (특 소 세)
	현 행	조 정	조 정 율	현 행	조 정	조 정 율	
보통휘발유	213.74	179.73	△15.9	477	477	-	85%→120%
무연휘발유	227.19	193.11	△15.0	477	477	-	70%→100%
등 유	192.47	172.47	△10.4	238	216	△9.2	
저유황경질중유(1.6W%)	112.99	111.67	△1.2	132.20	130.75	△1.1	
경질중유	111.11	109.79	△1.2	130.13	128.68	△1.1	
저유황중유(1.6W%)	95.46	92.37	△3.2	113.11	109.71	△3.0	
중 유	87.43	84.34	△3.5	104.27	100.87	△3.3	
저유황B-C(1.6W%)	79.99	75.58	△5.5	97.09	92.24	△5.0	
저유황B-C(2.5W%)	76.12	71.71	△5.8	-	-	-	
B-C (4.0W%)	69.67	65.26	△6.3	84.81	79.96	△5.7	

※()는 유황함량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 소비억제가 필요하였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건설, 도시전철 확충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특소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소비자가격은 현수준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3) 조정효과

이번유가조정으로물가측면에서 도매물가0.203% P, 소비자물가 0.051%P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산업부문에 연간 800억원 정도의 연료비 절감이 기대된다. 한편 휘발유 특소세율 인상으로 연간 1,560억원 정도의 사회간접자본투자재원이 추가로 조성될 전망이다.

국내유가기준은 19.40\$/B에서 17.70\$/B로 되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특별한 사태가 없는 한 현도

입원유가인 16~17\$/B에서 1~2\$/B 정도 상승하는데 그칠 전망이다므로 유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걸프사태 기간중 발생한 석유도입 손실보전금중 지급하지 못한 약 2천억원에 대해서는 석유사업기금 재특예탁분 약 1천억원을引出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 기금정수분과 상계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가조정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주요외국과 비교시 전반적으로 싼 현상이 지속되었는데, 특히 경유는 우리나라가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최근 심각한 도심지 대기오염이 경유차량에 기인하는 바도 있음을 감안할 때 조정요청이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調整後 消費者價格 比較

(단위 : \$/B)

	韓 國	臺 灣	日 本	프 랑 스
휘 발 유	104.18(100)	97.46(94)	144.97(139)	142.33(137)
등 유	47.18(100)	79.74(169)	60.06(127)	-
경 유	39.75(100)	73.83(186)	88.59(223)	98.67(248)
B - C 油	20.15(100)	21.38(106)	34.52(171)	16.50(82)

4. 油價자유화의 추진

국제석유시장이 산유국과 소비국간 협력강화, 선진국의 비축수준 등 공급능력을 감안할 때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이고, 금번 유가조정으로 국내 석유제품가격(공장도기준)수준이 국제수준에 접근함에 따라 유가자유화의 여건이 조성되었다. 국내석유산업의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경쟁여건이 조성된 휘발유와 등유에 대해서 8월중 자유화할 것이며, 경유 B-C유 등 나머지 유종은 국내 석유수급 및 경제안정을 위해 당분간 가격관리를 해나가면서 자유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휘발유와 등유에 대한 가격자유화 시행시 석유제품의 약 35% 정도가 시장기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어 향후 전면 자유화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격자유화 조치에 따른 공급자간 경쟁효과가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 자유화 유종에 대한 수출입자유화, 3.14조

정명령 해제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석유산업에 대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한편, 자유화된 석유제품은 소비자가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판매점에 게시토록 하며 행정지도 강화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 가격의 폭등·폭락을 방지하므로써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5. 맺는말

우리나라의 석유소비는 경제성장 및 생활의 편의성 추구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소비구조도 경질화되는 한편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저유황유 소비가 급증할 전망이다.

정유사는 설비확장 및 시설고도화를 위한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하나 국내자본시장 침체로 투자재원을 자기자본이 아닌 타인자본으로 계속 조달시 금융비용이 급증하여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한편, 상암중류시설에 대한 투자와 함께 중질

유분해 및 탈황설비에 대한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유황 B-C유 등 일부 유종은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할 전망이다.

또한 설비확장 및 유가자유화에 따라 석유업체 간 판매망 확보를 위한 가격경쟁과 광고 및 품질개선을 통한 비가격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중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석유산업의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기하되, 경쟁에 따른 正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유가관리도 석유산업 개방화, 자율화 추세에 따라 정부 관리의 폭을 축소해 나가고 기금의 유가완충 기능도 최소화 해나가는 한편 민간비축, 중질유분해 및 탈황설비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비축을 강화하고, 전국송유관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석유수급의 원활화를 기할 계획이다.

□ 「미움받는 사원베스트 10」 조사 □

管理者 : 책임감 없는 社員

남자직원 : 基本的인 예의가 없는 사람

女 직원 : 일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원

직장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 사원상을 조사한 결과, 관리자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 남자사원은 기본적인 예의가 결여된 사람, 여자사원은 상사에게 지시받는 것을 다시 동료나 여사원에게 지시하는 책임전가형인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社報「대한교육보협」이 관리자, 남자사원, 여사원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움받는 사원 베스트 10」 조사에 의하면 관리자가 싫어하는 사원 순위는 ①책임감이 없는 사람 ②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형 사원 ③부정적인 사고방식의 사원(불평불만이 많고 매사를 NO로 일관하는 사람) ④근무태도가 불량한 사람 ⑤예의범절이 현저하게 부족한 無禮型 사원 ⑥이기적인 사람 ⑦정직하지 못하다(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입으로 일한다) ⑧주인의식 혹은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사원 ⑨私的인 일에 열중하는 사원 ⑩자기관리를 못하는 사원(실력은 없으면서 자존심만 강하거나 낭비벽이 심한 사람)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남자사원이 싫어하는 사원 순위로는 ①기본적인 예의가 결여된 사람 ②자신의 의견이 수시로

변하는 무소신형 ③자기일만 하고 동료일에는 무관심한 사원 ④자기자랑이 심한 사원 ⑤합리적이지 못하고 자기주장만 하는 사원 ⑥쓸데없이 연장근무를 많이 하는 올빼미형 ⑦남보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양체형 ⑧앞에선 웃고 뒤에서는 흉보는 사람 ⑨눈에 거슬리는 옷차림의 사원 ⑩술을 지나치게 먹어서 출근시간까지 술이 깨지 않는 사람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사원이 싫어하는 베스트 10으로는 ①상사에게 지시받은 것을 다시 동료나 여사원에게 지시하는 책임전가형 ②큰소리를 잘치며, 존칭을 생략하는 권위주의형 ③하는 일도 없으면서 바쁜 척 눈치보는 사람 ④따뜻한 말 한마디 없는 목석형 사원 ⑤사적인 일을 하는 후안무치형 ⑥답배물고 대화하는 사람 ⑦쓸데없는 잡담 많은 태만형 ⑧장소구분없이 옷매무새 고치는 사람 ⑨사무실밖까지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사람 ⑩창구앞에서 거울보고 있는 여사원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업무에 임할 때에는 언제나 자신있고 활기차야 한다.

아무리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더라도 내 힘으로 넉넉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차 있을 때 그 일을 성실하고 만족하게 치러낼 수 있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항상 진지해야 한다. 직장 생활에서 최소한 이런 습관만은 몸에 배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